



무주 적상면 주민자치위, 어르신들 형광조끼 전달

무주군 적상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유혜선)는 18일 도로변 잡초제거 등 시너지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께 사고예방용 형광조끼를 입혀 드리는 행사를 가져 관심을 끌었다. 이 형광조끼는 무주군산림조합과 무주경찰서에서 제작한 것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과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동차 및 경운기 운전자에게도 형광조끼를 전달했다. 적상면 구여리 김모 씨는 "도로를 통행 할 때 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늘 불안했는데 형광조끼를 입고 다니면 안심이 될 것 같다"라며 흐뭇해했다. 유혜선 주민자치위원장은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고다"라며 기탁해주신 이들 기관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전유성 살롱지기와 농촌취향살롱 성료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종선)는 지난 6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주에 걸쳐 진행된 '전유성 살롱지기와 함께하는 농촌취향살롱'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내 도농간 교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농융합 상생 프로젝트로, 전라북도에서 2022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생생미플러스사업 중 유명인사와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진행된 전유성 살롱지기와 함께하는 농촌 취향살롱의 경우 총 6회차로 진행되어졌으며 자신을 표현하고 상호 교류하는 기회에 대한 강의와 함께 농촌체험콘서트, 농촌요리 전통차를 활용한 다도문화 등의 원데이클래스로 구성되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 몰랐던 농촌에 아름다운 모습과 즐길거리를 알게되어 너무 좋았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 내 유명인사를 매개로 단순 유명인사와 주민간 관계형성에서 벗어나 농촌과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농촌미를 중심의 도농 공동체 형성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우량 춘향씨감자 수확 구슬땀

남원 운봉·인월·이영 춘향 씨감자 농가들이 전국 최고의 우량종자로 자리 잡은 춘향씨감자 수확과 선별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선별한 씨감자는 지난 3월 정식한 뒤 관수 시기별 약제사용, 단계별 바이러스 감염예방, 기타 병해충 감염 등 강원도 보급종과 동일한 생산체계를 유지하면서 특히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전 포장이 통방사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생산한 무병종자로, 남원시는 올해 모두 19농가가 춘향씨감자 831ha를 재배해 120톤을 생산하였고 선별을 통한 100톤 규모의 규격사가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춘향씨감자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지리산 고행지에서 자라 식감과 맛이 좋으며 저장성이 좋고 강원도감자보다 일찍 공급되기 때문이며, 특히 씨감자는 생산한 뒤 90여 일 휴면 뒤에 썩어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에 생산한 춘향씨감자는 휴면기를 충분히 거친 뒤 9~10월 파종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고인배 소장은 "엄격하게 관리하여 우수한 씨감자를 생산을 위해 생산농가 현장지도를 수시로 실시해 고품질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안정된 나라 평화 사랑하며 살아가자”

제40회 전국스피치·웅변·시낭송·강사시연 대회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총본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가 주관하는 제40회 전국스피치·웅변·시낭송·강사시연 대회가 지난 16일 전주교육대학교 회광당에서 열렸다.

전국스피치·웅변·시낭송·강사시연 대회는 평화통일 운동 확산, 통일공 양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김양욱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함경식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이사장, 손명엽 대회 후원회장, 박영춘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 이사 등 내빈 67명의 대회 참가자들, 시민 180여명이 참석했다.

67명의 참가자들은 자신이 갖고 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그 결과 전체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 권민지(부안군)씨, 전체 대상(전라북도지사상)에 변숙경(군산시)씨, 전체 최우수상(전라북도교육감상)에 강대인(남원시)씨가 수상받았다.

이어 웅변부에 대상에 송용섭(전주시)씨, 스피치부 대상에 김만기(정읍시)씨와 김연경(전주시)씨, 시낭송부 대상에 남태희(전남 순천시)씨와 임순애(군산시)씨



가 차지했으며, 강사시연부 대상에 전옥주(전주시)씨와 탁정실(전주시)씨, 유치부 대상에 김민재(새싹어린이집), 학생부 대상에 이시아(서문초등6학년) 학생이 수상을 받게 됐다.

함경식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평화통일 운동 확산으로 살기 좋은 나라 건설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풍요로운 생활, 자유가 만발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사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화합과 단결로 안보를 튼튼히 하여 안정된 나라에서 평화를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덧붙였다. /김재훈기자



전주동천교회, 인후2동 저소득층 어어컨 6대 지원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관내 이웃사랑나눔 실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주동천교회(목사 이진호)는 지난 15일, 인후2동 주민센터(동장 이진숙)를 방문해 저소득층을 위한 어어컨 6대를 기부하고 설치비까지 지원했다.

이진호 전주동천교회 목사는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어컨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인후2동장은 "주년의 이웃을 더 많이 품어안아주는 시기에 인후2동 이웃을 위하여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주시는 전주동천교회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마음을 이어 받아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죽향동, 경로효친 복달음 삼계탕 나눔

남원시 죽향동발전협의회(회장 임진수)는 지난 7월 15일 초복을 맞아 죽향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홀몸어르신 80여명을 모시고 삼계탕을 대접해 드렸다.

이번 행사는 죽향동 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대접했으며, 건강에 이상은 없으신지 찾아오신 어르신들의 안부를 꼼꼼히 살폈다.

임진수 회장은 "웃으시길 잘 드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하인선 죽향동장은 "앞으로도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유니온씨티, 팔복동 독거어르신에 초복 삼계탕 나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동장 이현숙)에 위치한 (주)유니온씨티(대표 유혜숙)는 초복을 맞아 18일 무더위에 지친 팔복동 관내 독거어르신들에게 삼계탕 110그릇을 전달했다.

(주)유니온씨티는 교통신희동주, 버스승강장 등의 내구성과 심미성을 인정받아 러시아, 유럽 등 세계시장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으로 매년 팔복동 관내 취약계층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이다.

또한 지난 해에는 1억 원 상당의 미세먼지 회피형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전주시에 기증해 낙후된 시설교체가 시급하던 팔복동 아전리 버스승강장을 탈바꿈하는 등의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유혜숙 대표는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이 이번 여름도 무사히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삼계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IWPG 전북지부,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예선 시상식

(사)세계여성평화그림 전북지부(IWPG, 지부장 여미현)는 지난 16일 '제4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전북 예선 온라인 시상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평화의 빛으로 하나되는 지구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달 25일 전주·익산·군산·정읍 4개 지부 초·중·고 학생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열렸다.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전쟁의 아픈 역사를 일깨워 전쟁 종식을 소망하고 전세계 평화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평화사랑 △무기의 근절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문화 등 평화를 주제로 2018년에 시작해 올해 네 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최우수상을 받은 양0린(미정초) 학생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되었다"며 "어른들은 우리에게만 싸우지 말라고 하지말



고 어른들도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미현 전북지부장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테러와 전쟁이 사라지고 어려서부터 평화의 정신을 심어주는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가 날로 더욱 발전해가길 기대하며, 아름다운 평화의 세상을 이루는 귀한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효자3동 주민센터, 폭염 대비 관내 경로당 위문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동장 장진영)은 18일 관내 어르신 이용시설인 경로당 16개소를 방문해 무더위와 폭염으로 여름을 힘들게 지내실 어르신들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경로당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경로당 방문은 장마철을 대비해 시설을 점검하고 폭염을 대비해 냉방기 고장 여부 등을 파악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도 묻기 위해 마련됐다.

장진영 동장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국제아이즈맨 한국전북지부 물리치료사회, 선봉기 지원

국제아이즈맨 한국전북지부 전라지방 전주스파클럽(회장 이기택)과 전주시 물리치료사회(회장 양영식)는 지난 13일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선봉기(약 160만 원 상당) 40대를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에 기부했다.

전주스파클럽 이기택 회장은 "취약한 환경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주시물리치료사회 양영식 회장은 "올여름 유난히 고온다습한 기후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들께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고 싶었다.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은 △전주형SOS긴급지원사업 △사랑나눔간병지원사업 △우리아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시민의 자발적인 기부참여(문의=063-281-0030)를 기다리고 있다. /김윤상 기자



김제농협, 건강한 여름나기 행복 나눔 행사 실시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행복 나눔 행사를 김제농협부녀회회원들과 함께 18일 실시했다.

이번 김제농협 행복 나눔 행사는 나눔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조합원, 조손가정 조합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70가구를 선정하여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삼계탕 열무김치, 여름이불 등을 준비하여 가구마다 방문 전달했다.

이정용조합장은 "코로나와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제=곽태 기자

고창소방서, 휴가철 휴양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고창소방서(서장 리명순)는 오는 8월 말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펜션 등 휴양시설에 대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형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공숙박, 펜션, 민박, 야영장 등 고창군 관내 여름 휴양시설 중 화재취약대상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사항은 △해수욕장 등 관광객 대상 안전교육 △펜션 등 휴양시설 관계자 화재안전컨설팅 △화재시 행동요령 지도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관리상태 확인 △집중 화기취급 단속 △휴가철 주요 대상 화재예방순찰 강화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 및 개선명령 등 신속한 대응으로 여름철 휴양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방침이다.

리명순 소방서장은 "무더위로 인해 많은 인파가 휴양 시설을 방문하는 시기인 만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물고 갈 수 있는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